트레이드 렌즈
TRADE LENS

투자에 초점을 맞추다.

LENS INSIGHT / No.11

미국 증시 · 중간선거 · 6개월 조건부 전망

미국 중간선거 이후 6개월 상승 공식은 이번에도 통할까

과거 상승 통계와 2026년 금리·기업이익·AI 투자 부담을 연결한 조건부 전망

과거의 기록	13회 모두 상승 · 평균 +12.4% [1]
이번의 질문	같은 결과를 만들 이익과 금리 조건은 있는가?

상승 기록은 있다.
이번 전망은 달력보다 이익과 금리에 달렸다.

과거 통계, 2018·2022년 사례, 현재의 물가·실적·현금흐름을 분리해 분석한다.

분석 기준일 2026.10.31

TRADELENS.KR

시장구조·정책 전달·이익·위험 분석

01 / RESEARCH VIEW

상승 편향은 남아 있지만, 같은 수익률은 아니다

TradeLens 판단 | 선거 이후 6개월은 완만한 회복 우위, 경로는 높은 변동성과 업종 차별화로 본다.

> **핵심 결론**
>
> **과거의 전승 기록은 이번 상승의 보증서가 아니다. 다만 현재의 폭넓은 이익 성장과 지수 수준의 평가배수는 6개월 회복 가능성을 지지한다. 기본 전망은 S&P 500의 선택적·완만한 회복이며, 나스닥의 자동 선도나 과거 평균 +12.4%의 재현을 전제하지 않는다.** [1] [12]

판단을 지지하는 것	그대로 연장할 수 없는 것
기업이익의 기반	3분기 혼합 이익성장률은 높지만, 아직 미발표 기업의 예상치가 섞여 있다.
선거 불확실성의 완화 가능성	정책 방향이 보인다고 물가·장기금리·자본지출 부담이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격 조정 이후의 평가배수	지수의 평균 PER만으로 개별 AI 기업의 투자 회수 위험을 판단할 수 없다.

이 보고서가 묻는 것은 어느 정당의 승리가 주가에 유리한지가 아니다. 선거로 바뀔 정책 기대가 기업의 이익과 자본비용에 어떤 경로로 반영되는지, 그 변화가 기존 가격에 이미 포함됐는지를 따진다.

기본 경로

변동성 높은 회복
실적과 현금의 차별화

강화 조건

물가 둔화 + 이익 전망 유지
상승 업종의 확산

반증 조건

물가 재가속 + 전망 하향
신용·조달 여건 악화

전망 시점: 2026.10.31. 평가 구간: 2026.11.03 종가부터 2027.05.03 종가까지. 선거 결과와 시작 종가는 아직 확정 전이다. 수익률 목표나 시나리오별 확률을 부여하지 않는다.

02 / THE HISTORICAL CLAIM

“13번 모두 상승”의 분모와 기간을 먼저 본다

같은 중간선거 연구라도 가격수익률·총수익률·기간 정의가 다르면 숫자가 달라진다.

13 / 13
6개월 뒤 상승한 횟수

+12.4%
6개월 평균 가격수익률

+5.7%
3개월 평균 가격수익률

Schwab 집계: 1974~2022년 중간선거 13회, S&P 500, 배당 제외. 3개월 상승은 11/13회. 자료 기준 2026.08.14. 기관이 발표한 집계이며 13개 연도의 원자료를 재산출한 표가 아니다. [1]

연구	표본·수익률 정의	6개월 평균
Schwab [1]	1974~2022년 13회 선거 이후 6개월, 가격수익률	+12.4%
BlackRock [2]	1970~2022년 14회 약 126거래일, 총수익률	+14.1%

두 숫자의 차이를 오류로 단정하거나 평균 내면 안 된다. 표본에 1970년이 추가되고, 배당 재투자와 거래일 기준이 달라진다. 차이 전부를 배당 효과라고 설명하는 것도 근거가 없다. 같은 정의로 재계산하기 전에는 별개의 연구 결과로 읽어야 한다.

> **통계에서 가져올 수 있는 판단**
>
> **중간선거 이후의 상승 경향은 관측됐다. 그러나 평균은 개별 경로를 보여주지 않고, S&P 500의 결과는 나스닥 종합이나 나스닥100의 전승 기록이 아니다. 이번 보고서는 집계 통계와 두 지수의 개별 사례를 구분한다.**

03 / STATISTICAL LIMITS

13전 13승은 미래 확률 100%가 아니다

작은 표본, 선택된 시간 구간, 시대별 정책 차이가 “공식”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다.

검토할 문제	왜 중요한가	보고서의 처리
표본 수	4년에 한 번인 사건 13개는 독립적인 대규모 실험이 아니다.	관측 빈도와 예측 확률을 분리
시작·종료일	선거일, 월말, 126거래일 기준에 따라 결과가 변한다.	기관별 정의를 그대로 표시
기본 상승·계절 효과	주식의 장기 상승과 11~5월 계절성이 함께 포함될 수 있다.	선거만의 초과 효과로 단정하지 않음
시대별 공통 요인	불황 종료, 긴축·완화 전환, 이익 회복이 겹친다.	실제 사례에서 다른 설명도 검토

> **설명용 통계: 13회 성공의 불확실성**
>
> **독립 시행과 동일한 성공확률을 가정한 이항모형에서도, 13/13의 양측 95% 정확 신뢰구간은 약 75.3~100%다. 하한은 0.025^(1/13)으로 계산한다. 이 가정은 시대가 다른 주식시장에 그대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구간을 2026년 상승 확률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추가로 필요한 검증은 비선거년의 동일 계절·동일 길이 구간과 경기·물가·금리 조건을 맞춘 비교다. 단순히 모든 중간선거 뒤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선거가 상승의 원인이었다거나, 다른 시기보다 유리했다고 결론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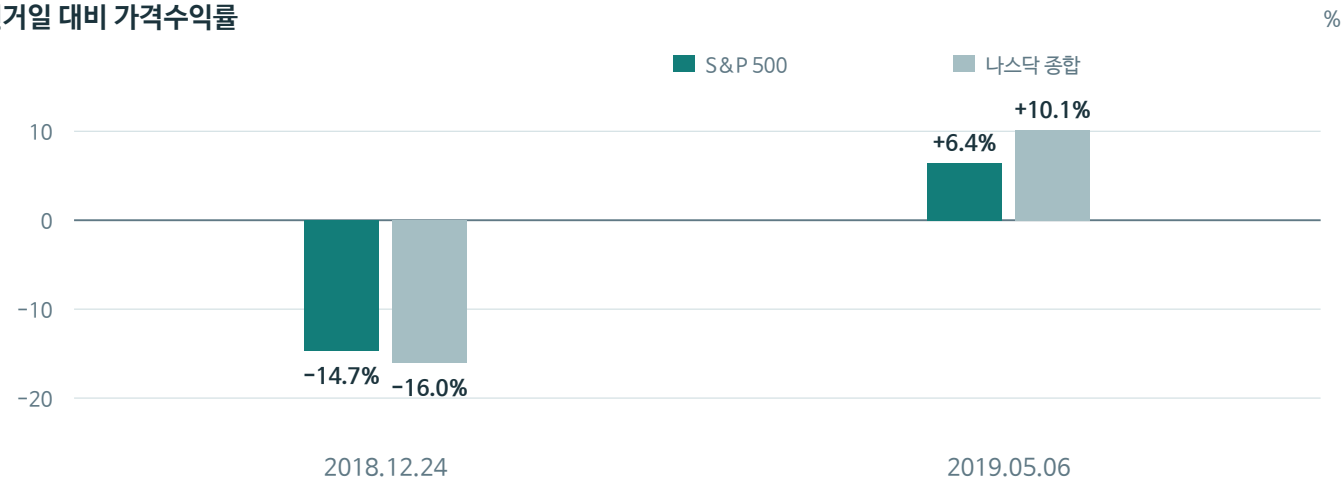
TradeLens 분석: 통계는 전망의 출발점이다. 전망의 확신도를 높이려면 이번의 이익·물가·금리 조건이 역사적 회복 사례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설명해야 한다.

04 / 2018: ENDPOINT VS PATH

6개월 뒤 올랐어도, 그 사이 손실은 컸다

2018년 사례 | 선거일 대비 12월 24일 하락과 다음 해 5월의 회복을 함께 본다.

선거일 대비 가격수익률



관측일	S&P 500 종가	나스닥 종합 종가
2018.11.06 / 선거일	2,755.45	7,375.960
2018.12.24 / 스트레스 구간	2,351.10	6,192.920
2019.05.06 / 6개월 뒤	2,932.47	8,123.290

수익률=(관측일 종가/선거일 종가−1)×100. 배당 제외. 위 세 시점만 표시했으며, 연속 일별 경로나 고점 대비 최대낙폭을 재현한 그래프가 아니다. [3] [4]

2019년 1월 30일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정책 조정에 인내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6개월 회복 구간에는 이런 통화정책 변화도 포함된다. 선거 직후부터 안정적인 상승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나 선거 하나로 회복을 설명하는 해석은 모두 부적절하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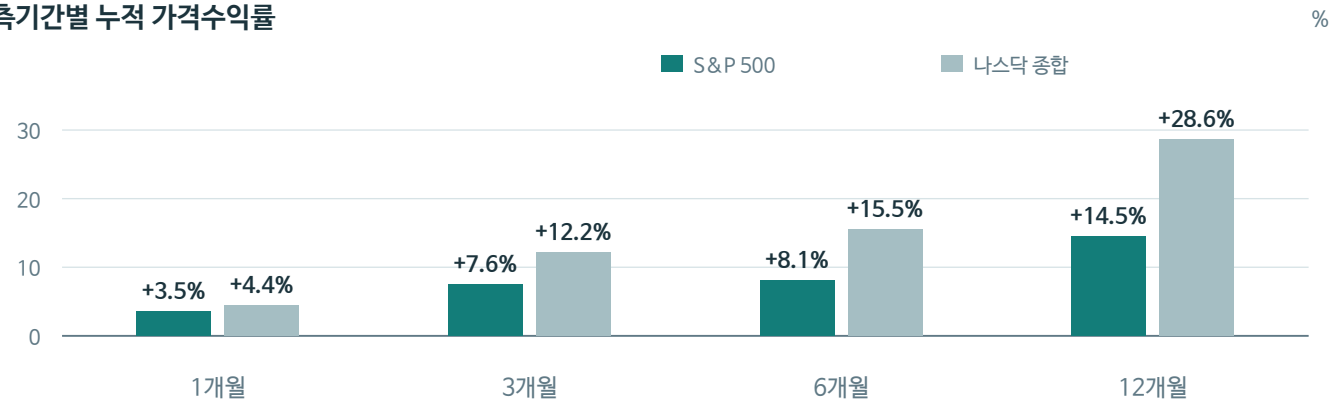
> **2026년에 적용할 기준**
>
> **6개월 상승 여부와 중간에 감수하는 손실은 다른 질문이다. 최종 수익률이 양수인 시나리오 안에서도 급락·되돌림·업종 교체가 발생할 수 있다.**

05 / 2022: THE MACRO CATALYST

상승에는 실제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았다

2022년 사례 | 물가 발표와 정책 경로의 재평가가 선거 이후 구간에 함께 들어간다.

관측기간별 누적 가격수익률



선거일 대비	관측일	S&P 500	나스닥 종합
1개월	2022.12.08	+3.5%	+4.4%
3개월	2023.02.08	+7.6%	+12.2%
6개월	2023.05.08	+8.1%	+15.5%
12개월	2023.11.08	+14.5%	+28.6%

기준 종가: 2022.11.08 S&P 500 3,828.11, 나스닥 종합 10,616.200. 1·3·6·12개월의 동일 날짜 종가로 계산한 배당 제외 수익률이다. [3] [4]

선거 이틀 뒤인 11월 10일에는 10월 CPI 7.7%가 발표됐다. 그날 S&P 500은 전일 대비 5.5%, 나스닥 종합은 7.4% 상승했다. 반면 연준은 2023년 5월 3일에도 금리를 5.00~5.25%로 인상했다. [3] [4] [7] [8]

무엇을 배워야 하나

시장은 현재 금리뿐 아니라 향후 물가와 정책 경로를 가격에 반영한다. 다만 이 사례만으로 CPI 발표의 독립적인 기여율을 추정하거나 2026년에도 같은 반응을 예상하지 않는다.

06 / POLICY TRANSMISSION

의석수보다 정책이 이익과 금리에 닿는 경로

특정 정당의 승리를 상승·하락 신호로 고정하지 않는다. 결과와 정책 실행은 별개의 단계다.

선거 결과 의회 구성 > **정책 실행** 입법·예산·규제 > **경제적 영향** 이익·금리·위험 > **시장 평가** 이미 반영된 기대

경로	상방으로 작용할 조건	반대 방향의 비용
세제·정부 지출	세후이익·민간수요가 개선	재정 부담과 국채 조달비용 상승
규제·통상	사업 불확실성·준수비용 완화	관세·보복·원재료 비용 전가
재정 협상	예산 집행의 가시성 개선	갈등 장기화와 위험 프리미엄
정치 불확실성	정책 범위가 좁혀져 할인요인 축소	정책 결과가 이미 가격에 반영

의회가 분점됐다고 반드시 주식시장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큰 정책 변경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편익과 예산 협상의 마찰이 동시에 존재한다. 반대로 정책 실행력이 높아져도 재정 확대가 장기금리를 끌어올리면 이익 증가의 가치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

제도적 근거: 법률은 양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통과되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 모든 규제·행정 조치가 같은 입법 경로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위 표는 정책별 효과를 비교하는 분석 틀이며 선거 결과 예측이 아니다. [14]

확인 순서

정치적 승패 → 실행 가능한 정책의 범위 → 현금흐름 변화 → 조달비용 → 기존 기대와의 차이. 선거 결과를 지수 수익률에 바로 대응시키지 않는다.

07 / THE 2026 MACRO STARTING POINT

성장 기반은 있지만 물가가 완화의 속도를 막는다

발표 시점과 지표의 기간을 구분한다.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같은 숫자처럼 비교하지 않는다.

지표·기간	공표 수치	시장에 읽을 의미
3분기 실질 GDP [10]	+3.4%	전기 대비 연율·속보치. 현재 경기의 버팀목
9월 PCE / 근원 PCE [11]	3.6% / 3.1%	전년 대비. 물가 목표 복귀는 아직 과제
9월 실질 소비 [11]	0.0%	전월 대비 반올림값. 명목 소비 증가와 구분
9월 실질 가처분소득 [11]	-0.3%	전월 대비. 가계 구매력의 부담
10월 28일 정책금리 [9]	3.75~4.00%	동결. 두 위원은 0.25%p 인상을 선호

성장세가 유지되면 기업 매출과 이익의 하방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물가가 높으면 선거 이후에도 금리 인하와 평가배수 확대를 동시에 기대하기 어렵다. GDP의 강세를 모든 가계의 소비 여력 개선으로 읽거나 한 달의 실질 소비 정체를 곧바로 침체로 읽는 것도 경계한다.

금리가 내려가는 이유	주식시장 해석
물가 둔화 + 이익 전망 유지	할인율 부담이 낮아지는 회복 친화적 조합
경기 급랭 + 이익 전망 하향	금리 하락의 편익보다 이익 감소가 클 수 있음

> **기본 전망의 제약**
>
> **이번 회복은 “선거 종료 → 즉시 완화 → 전면 상승”이라는 단선적 경로가 아니다. 물가 둔화가 이익 훼손 없이 진행되는지가 반등 지속성의 핵심 조건이다.**

08 / EARNINGS AND EXPECTATIONS

높은 이익 성장과 작은 서프라이즈가 공존한다

실적의 수준은 버팀목이지만, 새롭게 가격을 바꾸는 것은 기대 대비 변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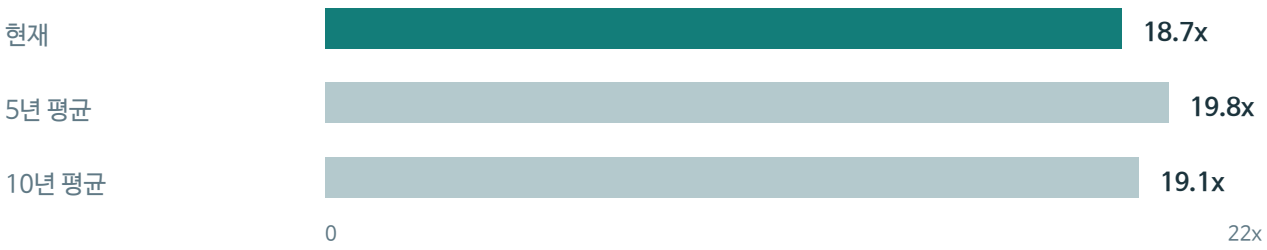
30.2%
Q3 혼합 이익성장률

82%
발표 기업 중 EPS 상회

1.9%
집계 EPS 상회 폭

2026.10.30 FactSet 기준. S&P 500 기업의 60%가 실적 발표. 혼합 성장률은 발표 실적과 미발표 기업 예상치를 합친 전년 대비 값이다. 상회 기업 비율과 상회 금액의 크기는 다른 지표다. [12]

S&P 500 향후 12개월 PER [12]



현재 자료는 광범위한 이익 기반과 제한적인 추가 놀라움을 함께 보여준다. 선행 PER가 과거 평균보다 낮다고 곧바로 저평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분모인 향후 이익 예상치가 낮아지면 같은 주가에서도 PER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실적에서 볼 것	전망을 강화하는 경우	전망을 약화하는 경우
다음 12개월 이익 예상	여러 업종에서 유지·상향	실적 성장에도 전망이 하향
성장의 확산	매출·마진 개선이 폭넓게 유지	소수 대형주에 개선 집중

지수와 개별 기업을 구분한다

지수 수준의 이익 지지력은 6개월 회복 논거다. 그러나 이를 모든 AI 기업의 높은 투자비용과 주가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확장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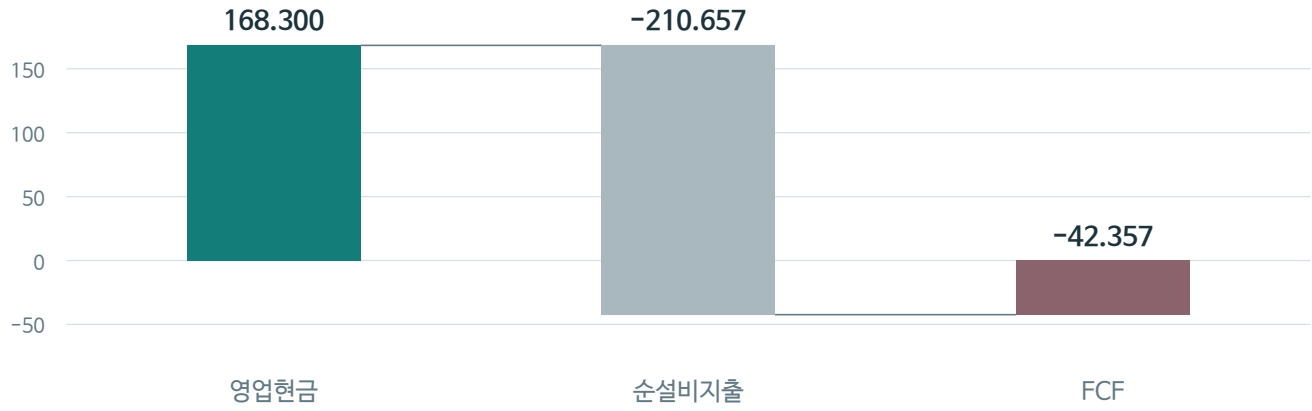
09 / WHY NASDAQ NEEDS A CASH TEST

AI 매출의 성장과 주주에게 남는 현금은 다르다

Amazon의 회사 정의 FCF 사례. 한 기업의 수치를 빅테크 전체 합계로 확대하지 않는다.

최근 12개월 영업현금에서 FCF로

USD bn



2026년 3분기 발표의 최근 12개월 기준, 십억 달러. 영업현금 168.300 − 순유형자산 취득 210.657 = 회사 정의 FCF −42.357. 순취득은 회사가 정의한 차감항목이며 총 CAPEX와 다르다. [13]

마이너스 FCF가 AI 수요의 붕괴나 지급불능을 뜻하지는 않는다. 투자한 자산이 앞으로 현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매출이 빠르게 늘어도 투자 회수기간이 길어지거나 가동·가격 조건이 나빠지면 미래 이익에 대한 평가배수는 낮아질 수 있다.

수익화의 증거	비용·자본의 증거
유상 사용량·재주문·고객 유지	순설비지출과 감가상각 부담
단위당 매출과 기여이익	가동률·전력·연산·고객획득 비용
영업현금의 지속적 확대	장비 교체와 다음 증설의 자금 소요

나스닥 전망의 추가 조건

S&P 500의 역사적 상승 기록은 기술주에 대한 별도 검증을 면제하지 않는다. AI 관련주가 회복을 주도하려면 성장률뿐 아니라 투자 후 현금의 개선 경로가 설득력을 얻어야 한다.

10 / RETURN DECOMPOSITION

이익이 늘어도 평가배수가 줄면 상승은 제한된다

설명용 모형 | 실제 지수 목표·기업 전망·투자 추천이 아닌 조건의 민감도다.

가격수익률 ≈ (1 + 이익 변화율) × (1 + PER 변화율) − 1

동일 기준 EPS 변화	PER −10%	PER 유지	PER +10%
0%	−10.0%	0.0%	+10.0%
+8%	−2.8%	+8.0%	+18.8%
+15%	+3.5%	+15.0%	+26.5%

P=EPS×PER의 곱셈 분해. 시작과 끝에 일관된 이익 정의를 사용하며 배당·환율은 제외한다. 향후 12개월 EPS를 쓰면 기간 이동 효과도 포함되므로 순수한 실적 상향과 구분해야 한다. 표의 가정값은 TradeLens 전망치가 아니다.

가령 동일 기준 이익이 8% 늘어도 PER가 10% 낮아지면 가격수익률은 −2.8%다. 반대로 이익이 15% 늘면 같은 PER 하락에도 +3.5%가 남는다. 금리·위험 프리미엄이 이익 성장의 효과를 얼마나 상쇄하는지가 핵심이다.

과거 평균 +12.4%에 도달하려면	필요한 PER 변화
EPS 변화 0% 가정	+12.4%
EPS 변화 +8% 가정	약 +4.1%
EPS 변화 +15% 가정	약 −2.3%

평균값을 목표수익률로 바꿀 수 없는 이유

+12.4%를 재현하려면 이번 이익과 할인율이 그 결과를 뒷받침해야 한다. 선거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한 이익 증가나 평가배수 확대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11 / SIX-MONTH OUTLOOK

기본 전망은 회복 우위, 전면 상승은 조건부다

2026.10.31 시점의 TradeLens 판단. 숫자 확률·목표 지수·매매 시점은 제시하지 않는다.

기본: 변동성 높은 선택적 회복

성립 조건	기업이익 전망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물가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 선거 관련 할인은 일부 줄지만, 장기금리와 AI 투자 부담은 남는다.
시장 방향	S&P 500은 6개월 회복 우위를 본다. 나스닥은 실적과 현금 전환이 나은 기업 중심으로 차별화한다. 중간 조정이 없는 경로는 아니다.
판단 변경	이익 하향이 여러 업종으로 확산되거나 조달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면 기본 판단을 낮춘다.

상방: 물가 안정과 이익 개선이 동행

성립 조건	물가 둔화·금리 안정에 더해 예상 이익과 투자 후 현금이 개선된다. 상승이 소수 대형주에서 다른 업종으로 넓어진다.
시장 방향	상승의 폭과 지속성이 강화될 수 있다. 나스닥의 강한 회복도 가능하나 AI 수익화 증거가 필요하다.
판단 변경	금리 하락이 침체 우려에서 비롯되거나 주가만 오르고 이익 전망이 따라오지 않으면 약화한다.

하방: 물가 부담과 실적 하향이 겹침

성립 조건	물가가 높게 유지되거나 재정·정책 충격이 금리 부담을 키운다. 동시에 매출·마진 예상이 낮아지고 신용 위험이 커진다.
시장 방향	6개월 수익률도 음수가 될 수 있다. 기대 변화에 민감한 성장주와 자금조달 부담이 큰 기업이 더 취약하다.
판단 변경	이익 전망이 안정되고 물가·신용 여건이 개선되면 하방 논거가 약해진다.

역사적 상승 빈도는 세 시나리오의 확률을 정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기본 전망은 현재 공개자료의 조합에 대한 정성적 판단이며 신규 자료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12 / TIME HORIZONS & CATALYSTS

첫날의 안도와 6개월의 성과를 나눠 본다

선거 이후에도 실적·물가·국채 발행이 발표된다. 첫 반응을 선거의 순수 효과로 단정하지 않는다.

평가 구간	핵심 판단	주된 반증
약 1개월 / 12월 초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반등 가능성. 금리·실적 발표가 경로를 흔들 수 있음	정책 갈등과 장기금리 부담이 확대
약 3개월 / 2027년 2월 초	4분기 실적과 다음 해 투자계획이 반등의 질을 구분	주가 회복에 비해 이익 예상·현금이 악화
6개월 / 2027년 5월 3일	이익 전망 유지와 물가 안정이 이어지면 회복 우위	복수 업종의 하향·신용 악화가 누적

예정일 / 미국 기준	새로 들어오는 정보	분석에서 분리할 이유
11.04 [15]	재무부 분기 차환계획	발행구성이 장기금리 기대에 영향
11.06 / 11.10 [16]	10월 고용 / 소비자물가	성장·물가 전망의 동시 재평가
11.25 [10] [11]	GDP 개정치 / 10월 PCE	속보 성장과 물가 추세 재검토
12.08~09 [17]	FOMC 회의	선거 결과와 별도인 통화정책 판단

관측의 출발점은 선거일 종가다. 보고서 작성일 대비 수익률을 선거 이후 수익률처럼 표시하지 않는다. 6개월 결과가 좋더라도 그 사이의 하락폭·회복 속도·업종 확산을 별도로 기록해야 한다.

> **이벤트의 겹침을 통제한다**
>
> **선거 다음 날 국채 발행계획, 이후 고용·물가 발표가 시장을 바꿀 수 있다. 모든 상승과 하락을 의회 구도 하나에 귀속시키지 않는 것이 전망의 정확도를 높인다.**

13 / DECISION RULE & MONITORING

상승 공식을 믿기보다 성립 조건을 추적한다

결론 | 6개월 회복 가능성을 기본으로 보되, 조건이 바뀌면 판단도 바꾼다.

관찰 항목	판단 강화	판단 약화
물가·금리	근원 물가 둔화, 이익 훼손 없이 금리 부담 완화	물가 재가속 또는 침체성 금리 급락
이익 예상	다음 12개월 이익의 유지·상향이 업종 전반으로 확산	매출 성장에도 마진·가이던스 하향 반복
AI 현금 전환	투자와 영업현금의 간격 축소, 유상 수요의 반복	현금 회수보다 투자·교체 소요가 더 빨리 증가
시장 내부·신용	상승 종목·업종의 확산, 조달 여건 안정	소수 종목 의존, 신용스프레드 확대
정책 실행	실행 가능한 예산·제도 일정의 가시성 확보	갈등이 기업 투자·조달·공급비용으로 전이

이 지표들은 정해진 임계값을 넘으면 자동 매매하는 규칙이 아니다. 금리 하락처럼 같은 신호도 그 원인에 따라 의미가 바뀐다. 한 번의 발표보다 물가·이익·현금·신용 지표가 함께 바뀌는 방향을 확인한다.

> **최종 답변**
>
> **이번에도 6개월 뒤 상승할 가능성을 기본 경로로 판단한다. 그러나 “중간선거라서 오른다”가 아니라 이익 기반이 유지되고 물가·조달 부담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조건 때문이다. 과거 평균 +12.4%를 이번 기대수익률로 쓰지 않으며, 나스닥의 선도 여부는 AI 투자 수익화로 별도 검증한다.**

현재 판단을 가장 강하게 뒤집을 조합은 물가의 재가속, 광범위한 이익 예상 하향, 신용 여건 악화의 동시 발생이다. 반대로 물가 둔화와 반복 현금 창출, 상승 업종의 확산이 동행하면 회복 전망의 근거가 강해진다.

한국 투자자의 원화 수익률에는 환율이 추가된다. 배당·비용을 제외하면 (1+달러 기준 주가수익률) × (1+달러/원 변화율) − 1이다. 달러 기준 지수가 올라도 원화 강세가 환산 수익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환율 전망이나 환헤지 권고가 아니다.

14 / SOURCE REGISTER · HISTORY & METHODS

출처 목록

청록색 본문 번호와 자료 제목·원문 열기를 누르면 해당 개별 원문으로 연결된다.

01. Charles Schwab | What the 2026 Midterms Could Mean for the Markets 원문 열기
2026.08.18 · 기관 연구 · 1974~2022년 13회; S&P 500 가격수익률, 3·6개월 집계

02. BlackRock | 2026 midterm elections and market performance 원문 열기
2026.06.11 · 기관 연구 · 1970~2022년 14회; 총수익률, 126거래일 기준

03. FRED / S&P Dow Jones Indices | S&P 500: Daily observations 원문 열기
2018~2023 · 일별 시계열 · 2018·2022년 사례의 실제 종가; 배당 제외

04. FRED / Nasdaq | NASDAQ Composite Index: Daily observations 원문 열기
2018~2023 · 일별 시계열 · 나스닥 종합지수의 사례별 종가; 나스닥100과 구분

05. NIST | Exact Binomial Confidence Interval 원문 열기
방법론 / Method · 통계 방법론 · 이항비율의 Clopper - Pearson 구간; 독립·동일확률 가정

06. Federal Reserve | FOMC statement, January 30, 2019 원문 열기
2019.01.30 · 통화정책 발표 · 금리 동결과 인내심 있는 정책 접근

07.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 Consumer Price Index — October 2022 원문 열기
2022.11.10 · 물가 통계 · 10월 CPI 전년 대비 7.7%; 공표 시점

08. Federal Reserve | FOMC statement, May 3, 2023 원문 열기
2023.05.03 · 통화정책 발표 · 정책금리 5.00~5.25%로 인상

09. Federal Reserve | FOMC statement, October 28, 2026 원문 열기
2026.10.28 · 통화정책 발표 · 3.75~4.00% 동결; 물가 평가와 표결

기관 집계·원시 시계열·회사 정의 지표를 구분한다. 시나리오와 설명용 계산은 TradeLens 분석이며, 과거 관측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15 / SOURCE REGISTER · CURRENT DATA & POLICY

출처 목록

청록색 본문 번호와 자료 제목·원문 열기를 누르면 해당 개별 원문으로 연결된다.

10.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GDP (Advance Estimate), 3rd Quarter 2026 원문 열기
2026.10.29 · 국민계정 속보 · 실질 GDP 전기 대비 연율 3.4%; 속보치

11.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Personal Income and Outlays, September 2026 원문 열기
2026.10.29 · 공식 통계 · PCE 물가·실질 소비·실질 가처분소득

12. FactSet | S&P 500 Earnings Season Update: October 30, 2026 원문 열기
2026.10.30 · 시장 데이터 분석 · 실적 발표 60% 시점; 혼합 이익성장률·서프라이즈·선행 PER

13. Amazon | Amazon.com Announces Third Quarter Results 원문 열기
2026.10.29 · 회사 실적발표 · 2026년 3분기; 최근 12개월 현금흐름·순설비지출

14. U.S. House Office of Legislative Counsel | Understanding the Legislative Process 원문 열기
제도 설명 / Process · 제도 설명 · 양원 의결과 법률 제정 절차

15.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 Quarterly Refunding Statement 원문 열기
2026.08.05 · 차환계획 발표 · 다음 분기 차환계획 발표일 2026.11.04

16.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 2026 Release Schedule 원문 열기
2026년 일정 / Calendar · 공식 발표 일정 · 11월 고용·소비자물가 발표 일정

17. Federal Reserve | FOMC calendars and information 원문 열기
2026년 일정 / Calendar · 공식 회의 일정 · 12월 8~9일 FOMC 일정

기관 집계·원시 시계열·회사 정의 지표를 구분한다. 시나리오와 설명용 계산은 TradeLens 분석이며, 과거 관측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16 / METHODOLOGY & USE

작성 기준·면책고지·이용 안내

확인된 사실, 기관 집계, TradeLens 분석과 설명용 가정을 구분한다.

항목	적용 기준
시점·질문	2026.10.31. 선거 결과 발표 전 작성한 조건부 시장 전망. 2026.11.03~2027.05.03의 6개월 구간을 평가하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이다.
역사 통계	Schwab의 13회 가격수익률 집계와 BlackRock의 14회 총수익률 집계를 구분. 서로 다른 표본·기간·배당 기준을 합치지 않는다.
사례 계산	2018·2022년은 선택한 사례이며 전체 표본의 대용이 아니다. FRED 종가로 선거일 대비 가격수익률을 계산, 반올림은 최종 표시 단계에 적용한다.
현재 수치	공식 GDP 속보치·월간 PCE·FOMC 발표와 FactSet의 실적/예상 혼합치. Amazon은 회사 정의의 최근 12개월 FCF 사례다.
모형·범위	신뢰구간과 EPS×PER 표는 설명용 계산. 정성적 방향 판단은 TradeLens 분석이며 지수 목표·상승확률·매매 의견·개인별 자문이 아니다.

면책고지

본 보고서는 시장·산업 및 기업의 경제적 구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가격·목표가격 및 이용자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록 정보와 분석은 작성일 기준이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망·가정 및 예시 계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원금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판단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트레이드렌즈는 본 보고서 이용에 따른 투자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및 이용 제한

본 보고서의 서술·도표·디자인·편집 및 구성 중 트레이드렌즈가 권리를 보유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 열람·보관 외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편집·번역·재가공하거나 복제·전송·재게시·재배포·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료·무료 제공 및 파일·화면 캡처 등 형태를 불문하며 로고·출처·권리표시를 제거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이용과 제3자 자료의 개별 이용허락조건은 그에 따릅니다. 공유는 트레이드렌즈 공식 게시페이지의 원문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